

제목: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1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 때에 구할 것을 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바른 _____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2. 각 사람에게 _____를 주십니다.
3. _____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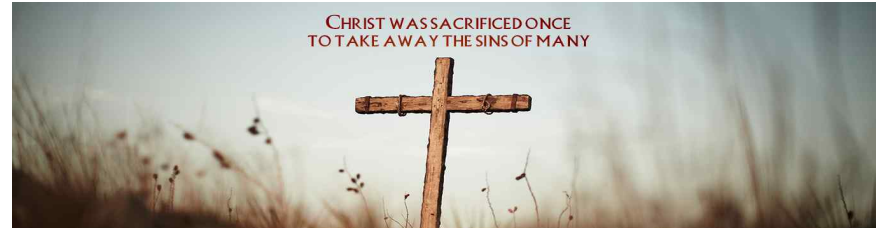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1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Corinthians 12: 1-11 신약 277 페이지 Presider
-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라투비아 Latvia 사람들의 고민)

지난 주 라투비아(Latvia)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90세가 넘는 할아버지들과 할머니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젊은 여성이었다. 모두 라투비아인들이었다. 교회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시작된 대화가 그들의 문화와 라투비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이 길어졌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라투비아 사람들이 이곳 포틀랜드에도 있어서 그들이 돈을 모아 땅을 구입하고 센터를 건축했던 것이다. 그들의 모임은 이곳에 있는 라투비아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고 같은 나라 같은 문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짧게 설명하자면 1차 세계 대전으로 구 소련에 나라를 빼앗기고 문화를 짓밟히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독일에 점령을 당하여 소련 사람들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역시 포로의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었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 북 유럽과 독일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처와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걱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 동부와 서부에 자리를 잡는데 오레곤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그 후 이곳에 센터를 만들어 그들만의 문화와 역사를 다음세대에 가르치며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 하신다.

그러면 현재 얼마나 많은 라투비아 사람들이 오레곤에 있는지 물으니 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마는 많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후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진짜 라투비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건물도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난 75년 동안 지켜온 장소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분과 같이 90세를 넘길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기도하며 노력도 했지만 이민이라는 현실과 시간의 변화라는 상황 가운데 경험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문화와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한다면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더욱 강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문화적인 변화와 시대에 상황에 관계없기 때문이다. 옆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변화하고 시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선물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센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가? 센터는 없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없어질 수 없고 문화의 변화에도 상관없는 생명인 것이다.

다음세대와 그 다음세대가 1세대의 마음과 다르다고 하여도 상관없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세대의 문제가 매우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답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믿음생활을 버리지 않도록 전하는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새로 등록된 가정

김문홍, 김미리 (503)308-8042 Happy Valley, OR

6. 5/6월 행사

6월 5일 (주) 성령 강림 주일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